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4년 9월 17일

## CUOMO 주지사 실업 보험 청구자에 대한 금리 인상 혜택 발표

### 10월6일에 최대 및 최소 주간 수익률이 증가될 것입니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지사의 실업 보험 개혁의 결과로, 2014년 10/6일에 주간 실업 보험 혜택에 대한 최대 및 최소 이율을 증가시킨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소 금리는 64달러에서 100달러로 증가될 것이며, 최대 금리는 405달러에 420달러로 증가 할 것입니다.

“이 주의 실업 보험 시스템이 너무 오랫동안 불완전한 상태였습니다 - 뉴욕사람들이 충분한 이익을 받을 만함에도 받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수십억 달러의 빚을 떠안은 사업들로 굶주린 상태였습니다”라고 Cuomo 주지사는 말했습니다. “우리 개혁의 결과인 금리인상은 일자리를 찾는 뉴욕 사람들에게 활력을 제공하고 기업의 구제를 부여하여 그들이 일자리 창출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주 노동 국장 Peter M. Rivera는 “이 법안이 장래를 대비함으로써 고용주와 신청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영구적인 해결책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실업 보험 개혁은 좀 더 예측 가능하며 기업 및 혜택 신청자들에게 이익률을 증가시킴으로써 공평한 비용을 보장하는 자기 조정 금융 시스템을 제공하며, 그들이 빨리 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수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한 국가의 실업 보험 신탁 기금은 실업자가 요구한 것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주는 차액을 메우기 위하여 연방정부로부터 자금을 빌릴 수 밖에 없었으며 고용주들은 이자와 함께 3.5억 달러의 빚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을 지고 있었습니다. 2013년 3월, Cuomo 주지사는 연방 정부에 빚을 빠르게 지불할 것을 포함하여 사기 방지대책과 처벌을 증가시켰으며, 청구하여 지급될 보조금에 대한 충분한 돈을 보장하였고, 14년 만에 처음으로 주간 이율 증가시킨다는 뉴욕주의 실업 보험 시스템의 주요 개혁을 법률화 하였습니다.

Cuomo 주지사의 조치가 시행 된 이후, 신탁 기금의 부채는 이미 반으로 줄었으며 법안은 기업이 400억 달러를 절약 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채무의 지불을 가속화하는 측정은 궁극적으로 실업 보험

신탁 기금을 안정화하고 좀 더 지속가능하고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신탁 기금 잔액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주에 대한 기여율은 감소합니다.

청구인의 주간 이익률은 그 사람이 최근 고용주로부터 얻은 것을 고려한 공식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들이 요구한 이후, 그들은 통화 혜택의 결정에 의해 자신의 이율을 통보 받습니다. 이율 증가를 받게 될 신청인은 노동부에서 별도의 통지를 받게 됩니다. 실업 보험 개혁에 따라 이 뉴욕 주에서는 신청자의 최대 이율이 주간 평균 임금의 50%에 도달 할 때까지, 매년 증가 할 것입니다. 최소는 100 달러에서 유지됩니다.

더 자세한 실업 보험에 대한 정보와 변화된 종합적인 내역은 [여기](#)에서 확인가능하며, 이율 계산의 방법은 [여기](#)에서 가능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http://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mailto: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

**WE WORK FOR THE PEOPLE**  
PERFORMANCE \* INTEGRITY \* PRIDE